

# OECD DAC 동향

(2013. 5. 10)

경협기획실 정책연구팀

## 1. Development Issue

### ① 개발금융 (Development Finance)

- (개념) 기존의 ODA를 포함하여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부문의 다양한 금융지원 방식을 포괄
  - 지원수단은 전통적인 양허성차관(loans) 이외에 **準원조성 차관\***, 정부·민간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**보증(guarantees)**과 **지분투자(equity investment)** 등을 포함
  - \* 원조차관과 상업차관의 중간 성격으로 보통 금리 2% 내외의 자금
  - 재원조달 측면에서 정부 ODA 예산(정부출연금)과 자체조달 재원(차입금)을 혼합하여 개발금융의 규모 확대 가능
  - 개발금융은 상대적으로 투자가 부족한 개도국 개발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, 자국 기업의 개도국 진출을 직·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제협력 기능도 수행

#### 기존체제와 개발금융체제 비교

	기존체제	개발금융체제
지원수단	원조(양허성)차관	원조(양허성)차관+증여+準상업차관+보증+지분투자
재원조달	정부출연(기금)	정부출연(이차보전 포함)+차입
사업구성	정부 인프라 프로젝트	정부 인프라 프로젝트+공기업 등 민간 주도 프로젝트

- (필요성) G20\*, HLF-4\*\* 등을 계기로 “경제성장을 통한 빈곤의 근본적 해소”가 중점 개발의제로 대두되면서 인프라 투자를 위한 개발재원 확보에 대한 관심 증가

\* (G20 서울 개발컨센서스, '10.12) ‘개발은 세계경제 동반성장의 수단’

\*\* (부산 HLF-4, '11.12) ‘원조효과성에서’ ‘개발효과성’으로 패러다임 전환

- 대규모 재원 확보를 위해 유상차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민간금융의 역할 등을 아우르는 “개발금융” 강조

## ○ (선진기관의 사례)

### ① 독일 KfW(독일부흥개발은행)

- KfW는 '11년 42억 유로 규모의 개발금융을 승인하고, 이 중 28억 유로를 차관으로, 14억 유로를 grant로 지원
- KfW는 차관 지원의 경우 사업성격, 상업성, 개도국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하여 정부재원과 자체 시장조달 재원을 적절히 조합
- 차관 중 5.1%는 정부재원을 활용한 양허성차관, 60.0%는 정부재원과 조달재원을 혼합한 低양허성차관, 34.9%는 자체적으로 조달한 準상업차관
- (정부재원을 활용한 양허성차관) IDA 적격 저소득국에 대한 우대조건 양허성차관(40년 만기 이자율 0.75%)과 최빈국 및 IDA 적격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표준 양허성차관(30년 만기 이자율 2.0%)
- (정부재원과 조달재원을 혼합한 低양허성차관) 정부의 금리차보전으로 조달금리(10년 만기 이자율 2.0% 내외)보다 낮게 지원하는 低금리 차관(reduced interest loan)과 협조융자 방식으로 정부재원의 장기저리 차관과 자체조달의 시장조건부 대출의 혼합재원을 사용하는 차관(composit loan, mixed-loan)\*
- \* 금리는 통상의 개발원조 금리(2.0%)보다 높고, 시장금리(5% 이상)보다는 낮은 선에서 결정
- (시장조달 재원을 활용한 準상업차관) KfW 시장조달 자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개발효과와 사업성이 있는 중소득국 사업을 대상으로 개도국이 조달하는 시장금리 보다는 낮은 수준의 언타이드 차관 지원(15년 만기 이자율 4.5% 내외)

### ② 프랑스 AFD(프랑스개발기구)

- 프랑스는 독일과 달리 정부예산과 자체재원을 분리하여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과 차입을 혼합하여 운용

- '11년 시장조달 25억 유로, 정부교부금 2.5억 유로 등을 활용하여 총 46억 유로의 개발금융 승인
- (양허성차관 및 低양허성차관) 정부재원을 활용한 증여율 25-70% 수준으로 제공되는 양허성차관과 조달금리와 지원금리 차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저양허성 차관\*
- \* 저양허성 차관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음
- (시장조달 재원을 활용한 準상업차관) 지방정부·지자체 (25%), 공기업(30%), 공공금융기관(21%), 민간(24%) 등을 차주로 하여 주로 상위 중소득국을 중심으로 제공

## ② DACnews April 2013\* (주요내용)

\* 2005년부터 OECD에서 비정기적으로 간행하는 DAC 소식지로 연 3-4회 발간 (2013년 들어서는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 발간)

### ○ (DAC Development Debate) South-South Cooperation and How this is Different from ODA?

- 남남협력은 개도국의 자생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는 바, 따라서 기술과 지식의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
- (G77 국가이자 OECD 회원국인 칠레의 사례) 인력 양성 등의 부문에서는 아직 발전이 필요하나, 여타 개도국에 비해 먼저 발달한 교육, 양성평등, 무역, 투자 등 부문에 대하여 기술 협력을 통해 지원 중
- 남북협력은 이타주의와 공급자 중심인 반면, 남남협력은 상호 이익과 상호발전 그리고 수요자 중심
- 남북협력에서 사용하는 동료평가, 모니터링 등의 체계가 남남 협력에서는 아직 미비
- 기존의 북-남 구분을 넘어선 글로벌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며, 그런 점에서 '글로벌파트너십(GP)'의 역할이 중요
- Jon Lomoy OECD 개발협력국장은 북-남 국가들 간의 공동 이슈를 제기하고 공동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이러한 협력체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

○ (특별기고문) A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

- Post-MDGs, Rio+20, 개발금융 등에 직면해 있는 2015년 이후의 개발 어젠다는 국제적(global)이고 통합적(holistic)이며, 측정 가능(measurable)하고 의미 있어야(meaningful)

- o (global) 선진국의 북반구와 개도국의 남반구라는 구분이 모호하며 국가들 간의 상호 의존과 협력이 증가
- o (holistic) 빈곤, 인간개발, 지속가능한 개발 등 다양한 이슈를 포괄
- o (measurable) 측정 가능한 어젠다 개발을 통해 원조와 협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
- o (meaningful) 빈곤한 세계 시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 될 수 있는 어젠다 설정

- OECD 글로벌 개발 포럼(Global Forum on Development)은 향후 3년간 Post-2015 개발 어젠다 수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
- MDGs 제정 이후 경제적 빈곤, 보건, 교육 등의 분야에서 발전이 있었지만, 여전히 절대빈곤 인구수가 많고 계층 간의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며 빈곤층을 더욱 취약하게 하는 기후변화라는 새로운 문제에도 당면
- 앞으로 어떤 개발 어젠다가 수립되더라도 ‘빈곤’ 이슈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하되, 이때 소득 수준 뿐 아니라 사회활동에의 참여, 법 앞에서의 평등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빈곤문제를 조명해야
- ‘성장’의 이슈는 지속가능한 성장, 녹색성장의 신개념으로 접근해야
- 개발도상국들의 통계 역량 강화 등 Post-2015 시대의 변화를 측정하고 그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및 정보 수집 역량 개발도 중요
- OECD는 2015년 이후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할 예정

## 2. DAC 회원국 동향

### ① 영국 CDC\*, 개도국 내 일자리 백만개 창출 성과

\* 전신인 식민지개발회사(Colonial Development Corporation)로 출범하여 현재의 영연방개발회사(Commonwealth Development Corporation)로 자리 잡은 영국 국제개발부(DfID) 산하 개발금융기관

- 영국 CDC는 2012년도 연차보고서를 통해 1,250개 개도국 기업에 대한 투자로 110만 9,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발표 (4/26)
- 동 수치는 2011년 연차보고서에서 발표한 결과보다 14% 증가한 수치
- 연차보고서는 또한 CDC의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약 40억 달러의 세입을 창출하여 해당 개도국 정부의 원조의존성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발표
- 동 보고서와 관련하여 영국 국제개발장관 J. Greening은 영국의 개발원조가 고용창출을 통해 원조의존성을 낮추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, 이번 보고서에서 발표한 수치는 개도국 빈곤 완화에 민간 기업도 기여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고 발언




### ② 체코, OECD DAC 가입 예정

- '13년 1월 15일 외무부장관을 통해 DAC 가입 의사를 표명한 체코에 대하여 DAC 사무국 심사단이 3월 20-22일 프라하를 방문하여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평가
- 방문 및 기 제출한 메모랜덤 심사 결과 체코가 DAC 회원국으로 적합하다는 평가
  - DAC 가입에 앞서 개발협력 체제를 개편한 결과, 원조효과성이 확대되었고 원조의 지역별, 분야별 배분이 구체화
  - 일정 수준의 ODA를 국제사회에 제공 ('11년 원조 실적은 2억 1,900만 달러)
  - 원조 사업 평가 체계도 개발협력 체제 내에 확립되어 있으며 매년 독립적인 평가 시행 중
- 제964차 DAC 정례회의('13.5.14)에서 체코의 회원 가입 결정 관련 심층 논의 예정

### ③ 프랑스(AFD), 2013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경제 동향 연례 발표회 (Annual Presentation of the 2013 Regional Economic Outlook for Sub-Saharan Africa) 개최 예정 (5/13)

- (개요) 5월 13일 프랑스 파리 AFD 본부에서 개최
- (의제) IMF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경제 동향 보고서
  - 에너지 분야에 대한 보조금 관련 논의
    - \* 보조금은 상품의 가격을 낮추어 수요자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수단이지만, 정부와 납세자 입장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크고, 우선순위 분야를 선별하여 보조금을 배분하는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
- (참석자)
  - Roger Nord (IMF 아프리카국 부국장)
  - Yves Boudot (AFD 아프리카국장)

### 3. OECD/DAC 주요 일정 (5/1-5/31)

	<b>제964차 DAC 정례회의</b> (의제) 체코 DAC 가입, 개도국의 PISA(국제학업성취도 평가) 참여, 원조투명성 관련 협의 등
	<b>제11차 DAC Network on Gender Equality (GENDERNET) 회의</b>
	<b>Morten Jerven* 세미나</b> * 노르웨이 출신 역사경제학자로 캐나다 Simon Fraser 대학 교수. 최근 저서 <i>Poor Numbers: How we are misled by African Development statistics and what to do about it</i> 을 출간하여 아프리카 통계 역량 개발의 중요성 강조 및 통계 수치의 허와 실 분석